

제 11 화 예루살렘의 첫 주교 사도 (小)야고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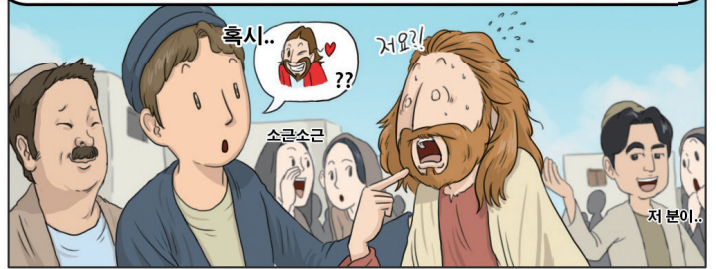
클·그림 : 송현철 안토니오

오늘은
알패오의 아들이며,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는 (小)야고보
사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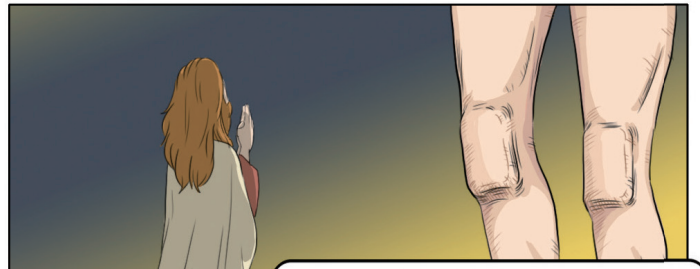
이름 - 야고보
축일 - 5월 3일
상징 - 책 · 곤봉 또는 방망이
수호 - 이탈리아 · 우루과이 · 약사 · 약물중독자
특징
1.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이며,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 사도와 구분하기위해
작은(小) 야고보라 부른다.
2. 곤옷과 망토만 걸치고 맨발로 다녔다고 한다.



사도는 주님의 형제로 언급되고(마태 13,55),
'주님의 동생'으로 불리며(갈라 1,19), 예수님과 외모가 닮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착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던 날에 대사제들, 성전 수위대장들과 원로들이
야고보 사도와 예수님을 착각하지 않도록 유다이스카리옷이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걸로 신호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신앙심이 두터웠고,
언제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양쪽 무릎이 낙타 발바닥과 같았습니다.

엄격하고 경건한
수양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기와 술을 일절 입에
대지 않았으며, 또한
유대인으로서의 율법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잘 준수하였어요.



야고보 서간의 저자로 알려졌으며,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첫 번째 주교였던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특히 사도들 가운데에서 미사를 드린 최초의 인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의 설교가 군중을
노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신전 지붕에서
내던져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중들로부터 곤봉과
방망이로 매를 맞아 순교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느님 아버지와
아드님을 굳게 믿으며 이렇게
권고합니다.
'결코 의심하는 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청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야고 1,6)

